

2020년 4분기 창원시 고용동향

2021. 1



I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조사방법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 -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.
 - 고용보험DB 법적근거
 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 -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 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‘상용’, ‘계약직’인 근로자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 -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 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 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 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3. 조사기간

- 2021년 1월 26일 ~ 28일

4. 조사사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)
-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(규모별, 업종별)

II. 창원시 고용동향

1. 창원시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현황

- 2020년 말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¹⁾에 가입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25만 2,941명임. 이는 전년 말 대비 0.1%(344명) 감소한 수임.
- 규모별로 '300인 이상 사업장' 근로자 수가 5.4% 감소한 5만 8,890명, '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' 3만 2,438명(-2.2%), '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' 9만 2,220명(-0.4%)임.
'10인 미만 사업장' 근로자 수는 6.8% 증가한 6만 9,393명을 기록했음. 소규모 사업장 및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임.

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	'17 4Q	'18 4Q	'19 4Q	'20			
				1Q	2Q	3Q	4Q
전 체	245,864 (0.9%)	252,690 (2.8%)	253,285 (0.2%)	251,418 (-0.7%)	251,440 (-0.1%)	255,260 (1.5%)	252,941 (-0.1%)
10인 미만	61,829 (3.8%)	64,074 (3.6%)	64,984 (1.4%)	65,262 (6.3%)	65,861 (5.5%)	67,717 (6.1%)	69,393 (6.8%)
10인 이상 100인 미만	91,595 (1.7%)	95,894 (4.7%)	92,587 (-3.4%)	92,469 (-4.3%)	92,289 (-1.4%)	92,793 (-0.3%)	92,220 (-0.4%)
100인 이상 300인 미만	33,575 (-2.8%)	33,943 (1.1%)	33,184 (-2.2%)	33,725 (-6.2%)	33,144 (-1.9%)	33,349 (-0.4%)	32,438 (-2.2%)
300인 이상	58,865 (-1.2%)	58,779 (-0.1%)	62,260 (5.9%)	59,962 (1.4%)	60,146 (-2.9%)	61,401 (0.2%)	58,890 (-5.4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- 1)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고용보험법 제8조, 10조 및 령 제2조, 제3조)
-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(단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 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 -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.
 -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 -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 - 외국인근로자(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,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

2.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

- 업종별(대분류)로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, 건설업, 기타업종의 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한 모습임.

2020년 4분기 말 기준 창원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3만 2,240명으로 전년 대비 0.1% 증가하며, 3개 분기 연속 증가한 모습임. 이는 소규모 서비스업종의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과 정부 공공일자리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임.

제조업 근로자 수는 10만 7,552명으로 전년 대비 0.2% 줄었음. 제조업 근로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는 28개 분기 연속으로 이루어졌음.

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	'17 4Q	'18 4Q	'19 4Q	'20			
				1Q	2Q	3Q	4Q
전 체	245,864 (0.9%)	252,690 (2.8%)	253,285 (0.2%)	251,418 (-0.7%)	251,440 (-0.1%)	255,260 (1.5%)	252,941 (-0.1%)
제조업	111,237 (-1.1%)	111,201 (0.0%)	107,789 (-3.1%)	109,126 (-0.9%)	106,694 (-2.5%)	106,709 (-1.6%)	107,552 (-0.2%)
서비스업	120,906 (2.9%)	127,788 (5.7%)	132,045 (3.3%)	129,077 (-0.3%)	131,551 (2.0%)	135,120 (4.1%)	132,240 (0.1%)
건설업	10,434 (0.2%)	10,309 (-1.2%)	9,970 (-3.3%)	9,740 (-3.9%)	9,878 (-1.1%)	9,886 (-0.7%)	9,934 (-0.4%)
기 타	3,287 (-1.7%)	3,392 (3.2%)	3,481 (2.6%)	3,475 (2.1%)	3,317 (1.5%)	3,545 (3.1%)	3,215 (-7.6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*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-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'기계 및 장비'가 2만 9,284명으로 가장 많았고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 1만 6,770명, '전기장비' 1만 6,328명, '1차 금속' 9,667명, '기타 운송장비' 8,981명 순임.

- 제조업 중 ‘전기장비’(+27.4%), ‘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’(+3.5%)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. 특히 ‘1차 금속’(-13.2%), ‘기타 운송장비’(-9.8%)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(-3.8%), ‘기계 및 장비’(-2.6%) 등 근로자 수 비중이 큰 전통적인 창원의 주력업종에서 감소폭이 컸음.

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	'17 4Q	'18 4Q	'19 4Q	'20			
				1Q	2Q	3Q	4Q
제조업	111,237 (-1.1%)	111,201 (0.0%)	107,789 (-3.1%)	109,126 (-0.9%)	106,694 (-2.5%)	106,709 (-1.6%)	107,552 (-0.2%)
기계 및 장비	31,046 (2.0%)	31,124 (0.3%)	30,066 (-3.4%)	29,745 (-4.0%)	29,256 (-5.3%)	29,014 (-4.9%)	29,284 (-2.6%)
자동차 및 트레일러	18,907 (-2.2%)	18,396 (-2.7%)	17,433 (-5.2%)	16,753 (-6.8%)	16,663 (-5.8%)	16,518 (-6.0%)	16,770 (-3.8%)
전기장비	12,624 (1.4%)	12,723 (0.8%)	12,816 (0.7%)	15,842 (23.4%)	15,383 (18.9%)	16,070 (27.1%)	16,328 (27.4%)
1차 금속	12,495 (-1.1%)	12,049 (-3.6%)	11,137 (-7.6%)	10,803 (-5.6%)	9,883 (-12.9%)	9,664 (-14.3%)	9,667 (-13.2%)
기타 운송장비	9,912 (-14.8%)	10,350 (4.4%)	9,954 (-3.8%)	9,768 (-3.4%)	9,615 (-4.0%)	9,488 (-4.5%)	8,981 (-9.8%)
금속가공 (기계·가구제외)	8,047 (-2.6%)	8,078 (0.4%)	7,927 (-1.9%)	7,851 (-2.7%)	7,722 (-3.6%)	7,742 (-2.5%)	7,920 (-0.1%)
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 등	6,062 (0.3%)	6,329 (4.4%)	6,314 (-0.2%)	6,357 (0.0%)	6,380 (-0.3%)	6,375 (0.0%)	6,535 (3.5%)
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등	3,374 (1.6%)	3,406 (0.9%)	3,589 (5.4%)	3,579 (3.0%)	3,470 (0.7%)	3,490 (1.1%)	3,566 (-0.6%)
고무·플라스틱 제품	1,887 (0.4%)	1,762 (-6.6%)	1,728 (-1.9%)	1,722 (-4.2%)	1,728 (-1.6%)	1,736 (-0.4%)	1,756 (1.6%)
식료품	1,572 (-5.7%)	1,611 (2.5%)	1,683 (4.5%)	1,624 (-1.6%)	1,608 (-1.6%)	1,621 (-4.5%)	1,680 (-0.2%)
기타	5,311 (9.8%)	5,373 (1.2%)	5,142 (-4.3%)	5,082 (-6.0%)	4,986 (-6.5%)	4,991 (-5.2%)	5,065 (-1.5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기타 제조업은 ‘가구’, ‘가족·가방 및 신발’, ‘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’, ‘비금속 광물제품’, ‘섬유제품(의복제외)’, ‘음료’, 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’, ‘의복·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’, ‘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’, 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’을 포함함.

-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'이 3만 5,436명으로 가장 많았고, '도매 및 소매업'(1만 4,853명)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'(1만 3,889명), '전문, 과학 및 기술'(1만 2,937명), '운수 및 창고업'(1만 225명), '교육'(8,841명), '숙박 및 음식점업'(8,622명)이 뒤를 이었음.

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	'17 4Q	'18 4Q	'19 4Q	'20			
				1Q	2Q	3Q	4Q
서비스업	120,906 (2.9%)	127,788 (5.7%)	132,045 (3.3%)	129,077 (-0.3%)	131,551 (2.0%)	135,120 (4.1%)	132,240 (0.1%)
보건업· 사회복지	29,754 (4.3%)	31,627 (6.3%)	33,758 (6.7%)	33,852 (6.1%)	34,784 (6.0%)	35,433 (5.9%)	35,436 (5.0%)
도·소매업	14,074 (1.2%)	14,445 (2.6%)	14,671 (1.6%)	14,479 (0.8%)	14,783 (0.1%)	14,920 (1.6%)	14,853 (1.2%)
사업시설 관리·지원	16,234 (6.2%)	15,669 (-3.5%)	14,679 (-6.3%)	14,549 (-4.2%)	14,047 (-8.2%)	13,803 (-6.7%)	13,889 (-5.4%)
전문, 과학·기술	11,343 (-2.0%)	11,360 (0.1%)	11,972 (5.4%)	12,221 (5.0%)	12,404 (5.3%)	12,573 (5.8%)	12,937 (8.1%)
운수·창고	10,610 (2.1%)	10,864 (2.4%)	10,903 (0.4%)	10,604 (-3.4%)	10,529 (-4.3%)	10,419 (-5.3%)	10,225 (-6.2%)
교육	7,627 (2.4%)	8,179 (7.2%)	8,677 (6.1%)	8,307 (6.7%)	8,751 (3.9%)	8,846 (4.3%)	8,841 (1.9%)
숙박·음식점	6,961 (11.8%)	7,621 (9.5%)	8,797 (1.4%)	8,533 (7.8%)	8,547 (4.2%)	8,785 (3.7%)	8,622 (-2.0%)
협회·단체, 수리·기타	5,528 (-5.9%)	5,817 (5.2%)	5,675 (-2.4%)	5,728 (-2.0%)	5,884 (1.7%)	5,986 (4.2%)	5,760 (1.5%)
공공·국방· 사회보장	3,942 (11.5%)	7,212 (83.0%)	6,978 (-3.2%)	5,122 (-41.7%)	5,957 (7.5%)	8,058 (51.8%)	5,632 (-19.3%)
부동산	4,934 (1.8%)	5,150 (4.4%)	5,401 (4.9%)	5,474 (6.5%)	5,525 (6.8%)	5,823 (6.6%)	5,605 (3.8%)
금융·보험	5,154 (-1.9%)	5,141 (-0.3%)	5,174 (0.6%)	5,126 (-0.7%)	5,161 (-0.3%)	5,160 (-0.4%)	5,139 (-0.7%)
정보통신	2,401 (3.9%)	2,434 (1.4%)	2,598 (6.7%)	2,531 (4.9%)	2,535 (0.2%)	2,654 (3.3%)	2,751 (5.9%)
예술·스포츠· 여가	2,344 (1.0%)	2,269 (-3.2%)	2,762 (21.7%)	2,551 (8.2%)	2,644 (4.9%)	2,660 (-3.8%)	2,550 (-7.7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3.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(취업)·상실(퇴직) 현황

- 2020년 4분기, 노동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2만 6,0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.9% 줄었고, 퇴직자는 2만 8,045명으로 16.8% 늘었음. 신규취업자(3,047명)와 경력취업자(2만 3,016명)가 각각 0.7%, 5.4%로 함께 감소한 가운데, 퇴직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음.

취업 및 퇴직자 수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	'17 4Q	'18 4Q	'19 4Q	'20			
				1Q	2Q	3Q	4Q
취업자	23,399 (-9.1%)	28,323 (21.0%)	27,392 (-3.3%)	33,626 (-14.5%)	25,474 (-6.8%)	29,675 (11.0%)	26,063 (-4.9%)
신규취업자	2,634 (-16.1%)	3,489 (32.5%)	3,068 (-12.1%)	4,052 (-22.2%)	2,798 (-7.9%)	3,469 (8.7%)	3,047 (-0.7%)
경력취업자	20,765 (-8.1%)	24,834 (19.6%)	24,324 (-2.1%)	29,574 (-13.3%)	22,676 (-6.6%)	26,206 (11.3%)	23,016 (-5.4%)
퇴직자	22,197 (1.8%)	22,981 (3.5%)	24,006 (4.5%)	38,243 (-0.8%)	24,892 (-11.0%)	25,732 (-2.6%)	28,045 (16.8%)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- 퇴직사유별로 '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'가 48.4%로 가장 많았고, '계약만료·공사완료' 30.0%, '인원감축' 11.9% 등이 뒤를 이었음.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'폐업·도산'+151.1%, '계약만료·공사종료'+40.6%, '불황에 따른 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등 인원감축'+6.4% 등 비자발적 퇴직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.

2020년 4분기 창원 사유별 퇴직자 수

퇴직 사유	퇴직자 수	비중	전년 대비
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	13,569	48.4%	-4.5%
계약만료, 공사종료	8,420	30.0%	40.6%
불황에 따른 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등 인원감축	3,349	11.9%	6.4%
폐업, 도산	1,740	6.2%	151.1%
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	347	1.2%	-3.3%
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 변동 등 자진퇴사	210	0.7%	16.0%
정년	190	0.7%	3.3%
기타	220	0.8%	3.3%
계	28,045	100%	

Ⅲ. 시사점

- 2020년 4분기 퇴직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6.8% 증가
폐업·도산, 계약만료, 인원감축 등 비자발적 퇴직이 전체 퇴직자 수 증가 견인
- 창원 전통적 주력산업 근로자 수 추세적 감소,
가전 및 전자제품 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

◎ 2020년 4분기 말 창원 제조업 근로자 수가 0.2% 감소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음. 창원 제조업 중 비중이 높은 전통적 주력산업인 ‘기계’(-2.6%), ‘자동차’(-3.8%), ‘1차금속’(-13.3%) 등의 근로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었고, ‘전기장비’(+27.4%)와 ‘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’(+3.5%) 등 가전 및 전자제품의 근로자 수는 증가했음.

국내외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와 산업의 전장화의 진전으로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요도 추세적 증가를 보이고 있음. 실제로 2020년 창원 수출입 실적에서도 동산업의 수출실적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음.

◎ 창원 4분기 누적 취업자 수(-4.9%)가 경력직과 신규직 모두 감소한 가운데, 퇴직자 수(+16.8%)는 큰 폭으로 증가했음. 특히, 퇴직사유별 퇴직자 수를 보면 ‘폐업·도산’(+151.1%), ‘계약만료·공사종료’(+40.6%), ‘불황에 따른 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등 인원감축’(+6.4%) 등 비자발적 퇴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음.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만료 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됨.